



# 브라가의 소식들

## Beracah Valley News

###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 순회전도 보고

**\*특별전도팀구성/**

1. 총지휘: 김승석 목사(분당충만교회, 선교회장, 단장)
2. 메세지 및 지도회원: 김중남 목사(충남파도교회, 실행위원), 정이남 목사(이리입상교회, 실행위원), 나웅 목사(행함과 믿음교회), 김정은 전도사(분당충만교회, 행정/위업간사), 김현철 전도사(분당충만교회, 기가자재간사), 주정림 간사(분당충만교회, 서기), 윤정화 간사(분당충만교회, 회계/위업간사), 류준복 간사(분당충만교회, 중국어간사)  
특별단원: 최용아 사모
3. 단 원: 김아영(분당충만교회, 영어간사) 외 18명



제 34, 35차 국내순회전도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주신 국내외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본회 회원교회와 후원회원, 기도회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보고를 드립니다.

제 34차 국내순회전도 (09년 8월 2일-13일) - 전라남. 북도지역 -	제 35차 국내순회전도 (10년 1월 10일-22일) -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지역 -
8/ 2 새에덴교회(광주)	1/10 27사단77연대 신교대(화천)
3 소화자매원(광주-장애인시설)	11 27사단포병대대(화천)
4 귀일원-정신지체장애인시설(광주) 31사단 담양대대(담양)	12 문혜요양원(철원-장애인복지시설) 8사단73포병대대(화천)
5 아름다운요양병원(목포-노인복지요양시설) 제3합대사령부(목포)	13 은혜요양원(철원-장애인복지시설) 7사단5연대(화천)
6 31사단93연대본부(강진)	14 8사단50포병대대(화천)
7 자비원(강진-아동복지시설) 31사단93연대3대대	15 풍익홈(화천-아동복지시설) 7사단8연대(화천)
1/9 35사단사령부(전주)	1/17 해군6전단(포항)
10 전북보성원(익산-시각장애인시설)	해병대1사단7연대(포항)
11 35사단105연대1대대(전주)	19 로템요양병원(포항-노인복지시설) 해병대1사단3연대
12 늘푸른집-(전주-노인복지시설) 7공수특전여단(익산)	20 송라요양병원(포항-노인복지시설) 해병대1사단사령부(포항)
13 아가페하우스(전주-노인요양시설) 35사단9585부대(완주)	21 기독교육원(포항-아동복지시설) 영덕대대(영덕)
	22 서울시립 양평쉼터(양평-노숙사시설)

### 후원&기도회원, 단원 모집안내

1. 후원회원: 물질과 기도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 교회-후원금 송금은 월별 또는 연간으로 선택해서 본 회가 발송하는 MICR 용지를 사용하거나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농협: 017-12-077384  
\*국민은행: 825-21-0082-437  
\*우리은행: 146-08-237723  
(예금주/김승석)

2. 기도회원: 모든 사역을 위해 매일 동참하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인터넷 홈페이지 상이나 또는 본회가 별도로 보내드리는 기도 제목을 답지 하시고 매일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3. 특별전도팀, 유치장전도팀 단원: 실무사역훈련과 국내외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학생교인이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31-713-0807/ www.calvarymission.com)

##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새에덴교회  
김윤정 집사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복음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시는 모습...  
성령의 기름부음과 역사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잊지않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새에덴교회  
무명

기술과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진 찬양과 율동이 아닌 진정과 진실로 충심으로 드러진 모습들이 모든 성도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1사단93연대3대대  
이병 오경환

웅장한 음악으로 시작한 공연이 이 무더운 여름날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시원함을 안겨주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병 양은기

환희와 기쁨에 찬 얼굴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장 김영연

여기 갈보리선교회와 같이 드린 예배를 통해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의 것들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먼저 저의 죄에 대해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요양병원  
손진희(물리치료사)

애정과 열정으로 준비된 공연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기대없이 참석했던 것 같은데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느낍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시원한 그늘을 창조하시고 시원하고 푸른 자연을 창조하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느끼며 더욱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평생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신 갈보리선교회 지체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31사단 93연대 8대대  
병장 이남곤

이번 선교활동의 연극을 통해 기독교에 대해 꽤 쉽고 재미있게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그간 종교에 대해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법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말이다.

앞으로는 매주는 아니더라도 시간과 여건이 가능할 때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 나약해진 나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31사단 503여단 2대대 본부중대  
상병 황태민

오늘 하루 힘든 일과를 마치고 나서 갈보리선교회에서 준비해 온 위문 예배를 우리 대대 전우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찬양과 워십, 그리고 성극을 보면서 군생활 가운데 나약해진 나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군대 오기 전) 교회에도 잘 다니고 찬양단에서 봉사도 했었는데 군대에 온 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고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린 후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참으로 감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생활을 하는 중에,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두려워함 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복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영화처럼 보게 되었다

새에덴교회  
황명자 권사

우리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과 복음의 의미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천국의 선물,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이 내 심령안에 물 붓듯 적셔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운 집회시간이었다.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다. 복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영화처럼 보게 되었다.

이제는 삶으로, 그 안에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할 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임을 깨달았다.



##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믿습니다!

609전대  
하사 염동명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법과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 받음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며 꼭 필요한 것을 믿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항상 내곁에 계시는 예수

3함대사령부 시설대대  
상병 엄형식

처음에 본 워십댄스는 댄스라고 하길래 빠른 곡의 노래인줄 알았는데 조용한 곡에 선녀같은 분들의 춤이 잘 어울려진 그런 무대로 아름다웠던 공연이다. 주님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춤은 정말 멋있었고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예수는 항상 내곁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워십드라마 중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난다. 또 십자가에 못박히는 모습은 소름까지 돋았었다.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었다.

## 배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북보성원  
윤미란(교사)

오늘 갈보리선교회에서 찬양과 율동, 좋은 성경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보성원 가족들에게 많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찬양으로 선생님과 우리 가족들의 눈망울을 적시며 진실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저희 보성원 가족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계기로 인해 기쁨, 희망, 자신감을 찾아 은혜 배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 강원도 산골에 찾아온 은혜

7사단 8연대 3대대 1중대  
병장 전윤식

위문공연을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강원도 산골에 공연을 와봤자 별 볼일 없거나 먹을 것이나 좀 주다 가겠지' 하는 생각을 했다. 19시에 예배가 시작되었다. 생각보다 화려한 음향과 조명에 놀랐는데, 이것보다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뚜렷한 점과 진지하게 공연에 임하는 선교단의 모습이 정말 감명 깊었다. 모태신앙으로 많은 공연에 참여도 해 보았고 보기도 했는데 이 갈보리선교단의 공연은 뭔가 색다른 형식의 집회였던 것 같다. 처음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생애를 파악할 수 있는 드라마와 김승석 목사님의 복음말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주위에 전우들도 매우 즐거웠고 잘 느끼고 가는 것 같아 좋았다고 했다. 갈보리선교단이 더욱 부흥하고 더 많은 축복 받길 원합니다.

## 변함없이 주님의 자녀로...

8사단 6673포병대대  
상병 송영재

우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새해 들어 다시 1년을 군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건강상의 문제등으로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나의 모습에 많이 힘들었는데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해 저를 일깨워주시고 다시 힘주심을 느꼈습니다. 회개하며 새해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군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자녀로 부대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마음속에서 울리는 메아리

31대대 3중대  
일병 조장호

내 마음 속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율동과 안무가 어우러져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느낀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법이라고 할까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법을 아주 조금이나마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셔서...



##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가슴속의 십자가가 다시 떠오르는 느낌

50포병대대 본부포대  
일병 김인혁

참 오랜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21년 동안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온 기독교인이라고 나름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한동대학교의 특성상 더욱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이 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곳은 나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로 쌓여 온 믿음과 이런 종교적인 생각, 경험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나를 사방에서 조여 왔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힘들다보니 신앙이니 믿음이니 이런 것들이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깨워 줄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예배다운 예배, 찬양다운 찬양, 기도다운 기도, 신앙인다운 신앙인을 만나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가슴속의 십자가가 다시 떠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지펴졌다고나 할까... 다시 떠오르는 가슴속에는 아마도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믿음과 신앙고백으로 모여지는 단단한 믿음이 자리잡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가슴에 간직하며... 좋은 선교자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 양평쉼터  
사회복지사 팀장 손재현

예전 군대생활을 할 때 많은 선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오셔서 선교활동을 한 기억이 납니다. 군대생활이 힘들 때 주말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심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힘있는 찬양과 목사님의 좋은 말씀, 너무나 감동 받았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천국갈 수 있는 좋은 선교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위해서 회개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천국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갈보리선교회 목사님,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교와 복음을 통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전해주시어 축복받는 갈보리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 난 모태신앙이었다!" 다시 당신께로 돌아온 저를 보듬어 안아주셨음을 깨닫습니다.

7사단 5연대 2대대 5중대,  
일병 유재상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의 팔베개를 배고서 달콤한 잠을 청할 때 할머니께서 제게 들려주신 재미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초라한 짚더미에서 태어나시고 동방박사들의 환영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이야기는 제게 너무나도 흥미진진해서 잠이 달아나 할머니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조르고는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새 20여년 전의 빛바랜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갈보리선교회의 순회전도를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질문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이 분들과 나의 연을 맺으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연을 감상하고 말씀을 들으며 저는 잊고 있었던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어릴적 예수님 이야기가, 할머니의 다정스러운 목소리와 추운겨울 따뜻한 난로가의 온화한 온기 같은 하나님의 품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것이, "그래, 난 모태신앙이었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스스로 종교를 거부하고 교회를 공개적으로 서슴치 않고 비판하며 신을 모욕해오며 20여년을 살아온 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갈보리선교회와의 만남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당신께로 돌아온 저를 보듬어 안아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추운 강원도 가장 높이까지 오셔서 제게 뜻 깊은 시간을 선사해주신 선교회 여러분께 제 진심의 감사를 드리며 어디를 가시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결!



##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았던 적은...

8사단 50포병대대  
이병 서재균

다양한 위문공연과 다양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았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댓가 없이 선교를 위해 활동하시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위해 선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마음밭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된 듯 합니다

8사단 50포병대대  
병장 이병선

보통 군부대 위문예배라 함은 이벤트성 위문공연에 지나지 아니하여 아쉬움이 무척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갈보리선교회의 위문예배는 복음의 핵심과 본질, 그리고 민감한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까지 심도있고 진실되게 선포하는 점에서 크리스천이지만 군생활가운데 전도는 커녕 제 자신하나 주스르지 못하는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다시 한 번 예수그리스도의 뜨거운 피의 복음을 듣고 제 마음밭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된 듯 합니다.

## 군복음화에 앞장서겠다는 사명... 믿음의 전우들과 함께

7사단 5연대 의무중대  
행정정보관 문수재 하사

갈보리선교단을 통하여 제가 입대할 당시 기도하고 바랬던 저의 사명에 대해 되새기게 하시고 그 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울려 고민과 고뇌속에 힘겨운 시간들을 자기 생각에 의지하여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간을 정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간부로서 군복음화에 앞장서겠다는 사명을 잃지 않고 앞서 달려 전진한 믿음의 선배 전우들을 기억하며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불타게 하셨습니다. 제일 좋고 은혜 받은 목사님의 '복음!' 예수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나의 죄가 없어진다는 진리는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경각심을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너 죄 사함을 받았느냐?" Amen!

화답하는 제 모습에 지난날의 죄악들이 썰려 미약한 믿을 드러내게 됩니다. 목사님! 이 경험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 저와 같은 은혜를 모든 장병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함께 천국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단결!



## 이 많은 사람을 통해 세상끝까지 전해질 복음

윤설희(단원)

기다렸던 순회전도의 첫 번째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다. 특히나 추운 겨울, 100년만에 찾아온 폭설과 한파, 게다가 강원도 철원과 화천지역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또 추위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옷을 갈아입고 방전된 배터리를 점검시켜 시동을 거는 일도.. 또 미끄러지는 바퀴에 맞지 않는 체인을 거는 일도 마냥 즐겁고 쉽고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또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셨다.

세상을 뒤덮은 눈보라와 한파는 인간의 기술과 능력을 압도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세상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사람들이 신기술을 내놓는다고 해도 자연재해와 불행과 근심을 이기지 못한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는 이들에게 어떤 기술이나 음식으로 그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닌,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구원을 전하려고 있다.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날마다 더욱더 새롭다.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서 뿌려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저들이 이를 수많은 가정과 삶속에 또 다시 열매를 맺히며 주님의 복음은 이 많은 자들을 통해 세상끝까지 전해진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우주와 인생을 통해 섭리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을 알게 됨이 내가 태어난 후 나의 삶을 통틀어 가장 기쁜 일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심령 또한 이 놀라운 체험이 허락되어졌음을 기억하며 더욱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지역으로

최혜영(단원)

오늘의 첫 집회 장소는 기독교보육원이었는데 순회전도기간 중 어린이 시설의 두 번째 방문이다. 그런데 두 곳의 아이들 모두는 지금시대의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순수해보였고 아이들은 '사랑을 주세요'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다 계시고 많은 사랑을 받아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참 사랑을 어려서부터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큰 복을 받은 아이들임에 분명했다. 그 아이들에게 더 확실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됨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영덕 대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회조차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호응도 박수도 칠줄도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귀한 복음을 듣게 하셨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지역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써주시는구나... 동시에 그들의 훈련받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해주었다.

## 무대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은혜와 감동

이한국(단원)

이번 순회전도는 나에겐 어느 때보다 힘든 순회전도였지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시간이었다. 나의 허약함 때문에 송라요양병원에서의 집회는 쉬어야만 했었다. 언제나 무대 위에서의 모습만 보다가 앉아서 내가 없는 무대를 지켜보고 있노라니 조금은 어색하고 이상했다. 무대 위에서의 단원들은 모두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그 몸짓 하나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율동이 될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무대에서 느낄 수 없었던 은혜와 감동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 오겠는가 감격스러웠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서 내가 율동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식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사람을 의식했던 모습, 의무적이나 형식적으로 임했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회개를 하

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나의 위치에 감사하게 되었고 그 존귀한 무대에서 누구보다 은혜를 받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다.



##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함께 살아갈 자녀

최수진(단원)

35차 순회전도 첫째 주 강원도에서의 마지막 집회이다. 이 날 우리 특별한 사람들과 강원도에서의 마지막 천국잔치를 즐겼다. 풍요로운 삶에서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

아가 된 친구들을 만났다. 부대에서 세운 복지시설, 전쟁중 고아가 생기면 부대에서 도와주고 보살핀 것으로 시작해 50년이 넘는 지금 2010년에도 풍요로운 삶이다. 천여명이 지나간 그곳에서 우리는 40명정도 남은 아이들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이 어떤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든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는 중요치 않다. 우리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함께 살아갈 자녀들이다. 각자 주어진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기쁘시게 하는가와 하나님을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 아이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다. 그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진 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랐다. 홀리마운틴에서 함께하길~어서 성장해서 만나자!

## 어디에든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가 있음을...

최수양(단원)

매월 2째주 토요일이면 강남경찰서 유치장 전도를 간다. 처음 유치장 전도를 갔을 때 떨리기도하고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그 곳에는 법을 따르지 않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하니 인간적으로 조금 불안하기도하고 그들이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염려도 되었다. 유치장에 대한 선입견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믿음이 없는 저들에게는 거북스럽고 듣기 싫지 않을까 겁이 났던 것이다.

그런 염려를 뒤로하고 두 개의 철로 된 문을 통과하여 유치장에 들어가서 찬양과 울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곳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의 표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었고 우리와 함께 찬송을 부르는 등 감동을 받기도 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처음에 두려워 떨며 유치장전도하기를 겁내했던 내 자신이 어리석어 보였다. 어디에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디든 달려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다.

## 경찰서유치장전도

- 서울A,B팀 : 강남, 강동서를 격주로 실시
- 대전팀 : 동부서, 서부서, 남부서, 북부서, 청소년 분류감호소를 매주 토요일 순회 실시



## 해외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편지

-필리핀-

2009년 한 해 많은 사랑으로 기도와 후원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유치원 운영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해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마감하고 새해에 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유치원을 건축하고, 수재를 당해 차량과 내 자신이 힘들었던 모습, 그리고 필리핀야 조나단 목사가 일하던 중 추락하여 장파혈로 대 수술을 하는 등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순간 순간 잘 헤쳐 나가고 있음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위기에든 후원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선교보고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네가스피 알바 이주 떠위교회가 한국 IDEA(정상권 장로)의 인도함으로 이길용 장로(한빛복지회 상임 부회장)께서 후원하여 건축되었습니다.

필리핀야 선한 사마리아교회는 청천교회(담임목사 송충현)의 후원으로 완공되었습니다. 3교회와 6교회가 건축 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귀한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학사역은 한국 IDEA에서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의 아이들과 우리 한센가족과의 결연이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유치원 사역 보고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혼구원을 하는 귀한 사역을 하며 교회 부설로 세워진 임마누엘 유치원은 하나님의 귀한 일군으로 세워지고 필리핀을 구원하며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료사역은 정기적으로 매달 각 지 교회를 순회하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파송한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올해에는 장기선교사로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첼광학교 성경교사사역



2009-2010년 6월 18일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 중국계 학교인 첼광학교에 한국인을 위한 특별 학급 46명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담당 교사로 다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건강하게 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솔(차남)이가 대학 진학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을 나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 건축 중인 제 3교회와 까말릴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 필리핀야교회 담임목사가 낙상하여 장파혈로 수술을 하여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과 병원비를 위하여.
3. 내년 유치원 교사 채용과 유치원생 모집과 운영비를 위하여.
4. 교육센터를 건축을 위하여 지금 120평의 땅을 가계약하고 건축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 장학사역과 의료사역의 필요한 약품과 운영비를 위하여.
6.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진솔이 대학 진학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7일 필리핀에서 김윤근, 조미선 선교사 올림

# Ministries of Calvary

## ◀ 사역소개 ▶

### 국내 사역

#### 특별전도팀 사역

\*본 팀의 전도집회는 A,B,C,D프로그램 중 대상에 따라 가장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집회(공연)이 이루어지며 복된 말씀은 본 회의 메시지위원(목사 외)이 2회로 나누어 영력 있는 말씀으로 큰 은혜와 감화를 끼치게 됩니다.  
\*각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찬양과 워십 댄싱이 어우러지며 천지창조(A프로그램), 예수님의 일생(B프로그램), 탕자의 비유(C프로그램), 손-판토마임(D프로그램) 등의 드라마가 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집회가 됩니다.  
\*본 집회를 통하여 ①새 교우나 연약자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시되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②기성 신자들은 영적 각성과 변화를 큰 감동과 함께 경험케 됩니다.



특별전도팀은 다음과 같이 여러 대상별로 공연을 통한 전도집회를 합니다.

#### 군부대공연전도집회

각종 휴일과 매주일 저녁에 전후방 군부대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여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가장 주된 사역

#### 교회찬양전도부흥집회

각 교회의 초청을 접수하여 순차적으로 택일하여 주일저녁시간에 가지는 특별집회

#### 중.고.대학교공연전도집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특정일에 강당 또는 교정, 야외공연장 등에서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

#### 특수기관공연전도집회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재활원, 병원 등 각 특수기관의 초청으로 특정일에 방문하여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

#### 순회공연전도집회

평상시 원거리 지역을 위한 각종 사역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키 위하여 여름 또는 겨울의 휴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국내 각 지방을 연차적으로 선정하여 2-3 주간 동안 군부대,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기업체 등과 각 교회에서 특별전도집회를 하는 사역

#### 유치장전도팀 사역

서울의 강남, 강동경찰서와 대전의 동, 서, 남, 북부경찰서, 청소년분류감호소에 있는 유치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팀으로서 매주 토요일 사역중임.

### 해외 사역

#### 해외순회공연전도사역

2~3주간을 설정하여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선교사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원하는 전도사역으로 현지교회, 학교, 교도소, 기관, 마을광장등에서 순회하며 전도하는 사역

#### 선교사지원사역

제정과 기도, 순회전도, 교회건축,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역

### 교육훈련 사역

#### 수요정기모임

매주 수요일 7시에 본부교회인 충만교회에 모여 프로그램 연습과 영성훈련을 합니다.

#### 팀모임

매주 목요일 팀별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한주간의 생활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 제자훈련반

수요정기모임과 함께 가장 주된 훈련프로그램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5시30분에 본부교회에 모여 찬양과 기도, 성구 암송, 큐티나눔, 말씀공부, 통성기도로 모든 사역을 위해 정예일꾼으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 특별훈련

여름과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행하는 국내외순회전도 전에 약 2회에 걸쳐 한 주간씩 훈련을 받는 시간으로 모든 기도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육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 특별전도팀 집회목록 2009년 3월 ~ 2010년 2월 현재

3/8	1포병여단868대대	8/30	수도군단1175공병대 155대대
3/15	5사단 도우중대	9/6	평강의집(노인요양원)
3/22	1포병여단3포병단 651대대	9/13	3군사령부직할공병 환경대대
3/28	용인노인간호센터 실버빌(노인요양원)	9/20	용인백암너싱홈 (노인요양원)
4/5	제2군수지원사령부 96정비대대	9/27	사랑나무요양원 (노인요양원)
4/12	수도군단사령부	10/4	17사단100연대
4/19	26기갑수색대대	10/11	수도방위사령부
4/26	17사단101연대	10/18	믿음과 행함교회
5/3	1포병여단656대대	10/25	한세교회
5/5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장애인복지시설)	11/1	수도군단1175공병단 159대대
5/10	6포병여단911대대	11/8	구세군과천양로원
5/17	17사단102연대2대대	11/15	담안선교회 (법무부사단법인가활원)
5/24	수도군단510방공대대	11/22	이천한나원(노인요양원)
5/31	국군의무사령부	11/29	수연당(노인요양원)
6/7	국군백제병원	12/6	향림원(장애인시설)
6/14	수도군단1175공병단	12/14	평강의집(노인요양원)
6/21	2기갑여단6전차대대	12/21	육군교도소
6/28	20사단61여단	1/3	20사단108기계화 보병대대
7/5	25사단사령부	1/10	27사단77연대신교대
7/12	육군훈련소(2회)	1/11	27사단포병대대
7/19	수도군단1175공병단 159대대	1/12	8사단73포병대대
8/4	31사단503여단2대	1/13	7사단5연대
8/5	해군제3함대사령부 31사단93연대	1/14	8사단50포병대대
8/6	31사단93연대3대대	1/15	7사단8연대
8/7	35사단직할대	1/17	해군6전단
8/9	35사단105연대1대대	1/18	해병대1사단7연대
8/11	제7공수특전여단	1/19	해병대1사단3연대
8/12	35사단106연대	1/20	해병대1사단사령부
8/13	2군수지원사령부	1/21	영덕대대
8/16	56탄약대대	1/22	서울시립 양평센터 (노숙자시설)
8/23	수방사1113공병단 157공병대대	2/7	75사단사령부